

남이 아닌 우리

코디네이터 조문희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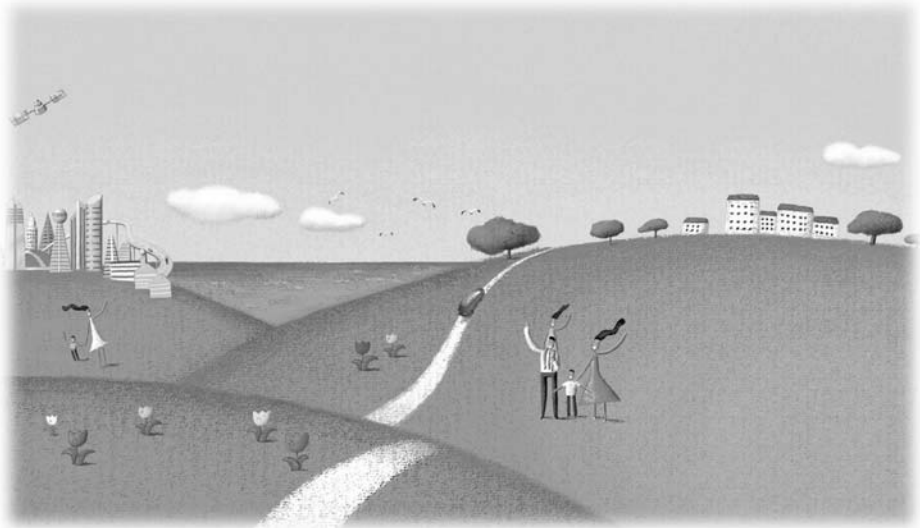
조혈모세포 기증, 물론 다시 생성이 되는 세포이기는 하지만 본인의 것을 그것도 신체의 일부분을 얼굴도 전혀 모르는 그야말로 “남”에게 준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협회에 입사하기 전까지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2003년 4월에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병원에서 기증자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환자들이 아픔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는 간호사로 일을 했다. 협회에서의 내 일은 기증자를 만나고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증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없도록 하여 혈액질환 환자들의 아픔에서 벗어나도록 이식을 조정하는 그 전보다 더 책임이 막중한 일을 하고 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의 조문희 간호사입니다. 몇 년 전에 골수기증 신청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네, 물론 기억하죠. 저랑 맞는 사람이 있나요?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 합니다.” 몇 년 전에 신청했던 골수기증신청, 바쁘게 살아가며 기증신청을 잊고 살아갈 한 기증자에게 낯선 누군가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해서 유전자가 일치하는 환자가 있다고, 조혈모세포기증을 하라고 하면 당황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정말 흔쾌히 기증에

동의해 주시면서 오히려 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연거푸 하시는 기증자 분께 더욱욱 감사한 맘이 생긴다.

또 어떤 분은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몇 년간 일하시면서 정규직을 바라시던 한 기증자분이 있었는데 공모롭게도 기증 일정이 정규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험이 있는 이틀 전이었다. 본인은 건강하니 잘 되지 않을 경우 다시 시험을 보면 되고 그 전에 틈틈이 공부를 해 놓겠다고 하시며 기증을 하셨다. 엉덩이 밑에 모래주머니를 깔고 누워서 공부를 하셨던 기증자분이었는데 예상대로 시험에 떨어지셨다고 한다. 내가 오히려 죄송스러워 연락드리기가 어려웠는데 어느 날 밝은 목소리로 기증자 분께 연락이 왔다. 회사에서 그 시험 이후 특별전형으로 정규직을 선발하는데 골수 기증한 일을 좋게 봤는지 정규직으로 선발되었다며 감사하단 전화를 주셨다. 하지만 나는 그 분이 골수기증으로 정규직에 선발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동안 일하시면서 늘 항상 본인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정규직원이 되셨고 우연히도 시기가 그렇게 맞았던 것 같다.

세상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음을 기증자들을 통해 새삼 깨닫는다. 협회에서 코디네이터로 일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항상 그분들을 통해 난 참 많은 걸 배우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 같다.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밝게 웃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 또한 따라 가려고 노력하게 된다. 처음에는 모르는 기증자들을 만나 어색한 분위기에서 얘기 나누는 게 불편했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내가 그 시간을 즐기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남에게 베풀 줄 알고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어찌면 살아가면서 만나기 힘든 사람들을 매일매일 만나고 있다. 한때 나는 참 운이 없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혼자 생각했던 적이 있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다른 각도로 바라 볼 수 있도록 해준 내가 만났던 모든 기증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라는 말도 함께...